



구례군 용방면 사리리 서시천변에 있는 꽃강에 유채꽃이 봄바람과 함께 노란색 물결을 이루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지난겨울 동해와 봄철 이상 기온으로 올해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유채가 현재 만발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길이 1.5km, 면적 51,000㎡(축구장 약 7개의 면적)의 꽃강은 2017년 꽃강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천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친수공간 제공 등 하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성하였다. 한편, 유채꽃은 이번 주말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구례=오인석 기자 gunguck@

해양쓰레기에 뒤덮인 전남 해안

연 4만톤 절반 외국서 떠내려와
여수>신안>고흥>목포>영광 순
“효율적 관리대책 강구할 것”

전남 인근에서 연간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가 최대 4만여에 달할 것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1만8000여은 처리되지 않아 해안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전남도가 사단법인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에 의뢰한 해양 쓰레기 발생량 조사 용역 중간 결과에 따르면 연간 쓰레기 발생량은 2만2천879t~4만575t으로 추정됐다.

외국에서 유입된 쓰레기양이 3천960t~2만1천120t으로 추정되면서 전체 발생량 추정 범위가 넓어졌다.

해양 쓰레기 발생량은 육상, 해상(외국 포함) 유입량을 더한 값이다.

최대량 기준으로 전체 발생량의 절반 정도가 중국 등 외국에서 떠내려 왔다는 의미다.

육상 쓰레기는 강수량이 많은 7~9월 90% 이상인 5천47t이 하천 등을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양에서는 어선에서 7천989t, 양식



/픽스타

장에서 3천831t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 어업 유형별 발생량 비중은 자망 41.1%, 복합·기타 35.4%, 근해 17.6% 등이었다.

지역별로 여수, 신안, 고흥, 목포, 영광, 완도, 진도, 장흥 등 순으로 많았다.

양식 품목별로는 김(55.5%), 미역(20.0%), 굴(12.3%), 다시마(7.4%) 등 순으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다.

전남에 남아있는 쓰레기는 침적·부유량을 빼고 해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1만8천589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추정치는 그동안 이뤄진 연구 조사와 대면 설문 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정확한 수치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방대한 추정량은 효율적인 관리 대책의 시급성을 시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원석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해양 쓰레기가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하고, 바다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 알아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오는 10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보성군, 지역현안 도지사 후보에 건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7개 사업

보성군은 6.13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맞아 지역의 현안사업과 SOC 사업을 발굴해 전남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굵직한 현안과제들이 도지사 공약으로 선정될 경우 민선7기 임기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군에 따르면 주요 현안사업은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의향남도 중심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전라남도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및 현충시설 국가관리 추진' ▲보성소리의 세계화와 계승발전을 위한 '세계문화유산 판소리성지 명소화사업 추진' 등 7개 사업이다.

SOC사업은 ▲남중권 상생 실크로드

실현을 위한 '국도 77호선 노선변경' ▲인접시군과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보성 북내~화순 남면간 도로개설' ▲주요 농업기반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보성강 댐 내 퇴적토 준설사업' ▲남해안 해상물류 전진기지로의 도약을 위한 '보성 울포항 국가어항 지정' 등 4건이다. 규모는 총 11개 사업에 3086억 원이다.

군은 발굴된 건의사업을 각 후보캠프에 전달하여 민선7기 현안과제의 매듭을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유현호 군수 권한대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남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우리군의 당면한 현안과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며, “민선7기 출범 후에도 우리군 현안사업들이 도정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 보성=문병환 기자 m8527188@



장흥군

재난·화재 대응훈련

장흥군(군수 김성)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장흥종합병원 주차장에서 장흥종합병원 화재상황을 가정한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강진소방서, 의용소방대, 민간단체 등 11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이날 훈련은 장흥종합병원 화재대피 자체현장 매뉴얼에 근거해 훈련을 진행한다.

실제상황에 준해 훈련을 실시해 매뉴얼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매뉴얼 정비를 할 계획이다. /전남 장흥=이진오 기자 alice1008@

‘천불의탑 신비’ 운주사, 문화향연 펼쳐

석가탄신일을 맞아 천불천탑의 신비를 간직한 운주사에서 다채로운 문화향연이 펼쳐진다.

전남 화순군은 10일 '꿈꾸는 복두, 일어서는 와불'을 주제로 한 2018 화순운주 문화축제가 21일부터 22일까지 도암면 운주사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화순운주문화 축제(공동위원장 박병교·도정스님)는 6개 부문 38개 행사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1일 첫째 날에는 도암농악단의 길놀이로 시작으로 개막식에 이어 야외음악

회가 열린다.

둘째 날인 석가탄신일에는 글짓기 대회와 청소년댄스 경연대회와 화순문화원 공연, 비보이 댄스공연, 국악 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 지역민과 관광객이 하나가 되는 탑돌이, 와불세우기, 소원 풍선 날리기도 이어진다.

박병교 추진위원장은 “석가탄신일에 가족과 함께 운주사를 찾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도 간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전남 화순군은 9일 추석명절 연휴 기간 '천불천탑'의 신비를 간직한 운주사에 하루 최고 2000여명의 탐방객이 찾았다고 밝혔다. /뉴스1

관광도시 여수, 호텔 등 신규투자처 각광

3년 연속 국내 최고 국제해양관광도시로 인정받은 여수시에 수익형 호텔이 들어선다.

일성건설은 호텔 케니스토리 여수점이 여수시 충무동 일대에 이만달 내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호텔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8층, 전용 면적 15~20㎡으로 객실은 총 195개이다.

호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전매제한도 없어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다. 또 상가, 오피스텔에 비해 낮은 투자비용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시는 꾸준한 관광자원 개발로 인해 매년 많은 수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2015년부터 3년 연속 관광객 1300만명을 돌파했으며 지난해 1500만명을 돌파했다.

호텔 케니스토리가 들어서는 충무동은 여수시 구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며 남만포차, 벽화마을, 맛집 거리, 이순신광장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있다.

편리한 도심에서 돌산대교, 거북선대교 등 바다 조망도 가능하고, 주변에 수산시장, 교통시장, 서시장, 중앙시장 등 상권도 밀집돼 있다.

우수한 교통여건도 갖추고 있다. 여수 엑스포역 및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여수공항 등이 인접해 있으며 여수엑스포역까지 10분 내외, 여수공항까지 30분 내외면 갈 수 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4월 2018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국제해양관광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여수 밤바다 및 낭만버스킹, 낭만포차, 낭만버스 등 낭만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지난해 하늘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관람할 수 있는 스카이 투어가 취항해 육해공 투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카약, 윈드서핑 등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과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섬 여행, 바다를 끼고 달리는 자전거코스 등도 호평을 받았다.

여수시는 “관광객의 원도심 집중에 대비해 여수 밤바다 야경코스를 웅천과 소호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시민 중심의 관광정책을 통해 최고의 행복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김남중 기자